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류인 개인전 《이중성》



류인 개인전 《이중성》(아라리오갤러리 천안, 2026) 전시전경.

전시제목 : 류인 개인전 《이중성》
전시일정 : 2026년 4월 14일(화) – 2027년 4월 11일(일)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전시작품 : 총 50점(조각 및 설치 23점, 드로잉, 마케트 외 27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 전경]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CHEONAN → 20260414-20270411 류인, 이중성

※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state of RYU In.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류인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문의] 이상미 팀장, M. 010-8970-8415 / E. sangmi.rhee@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작가소개	-----	2-3
	3. 작품소개	-----	3-10
	4. 전시전경	-----	10-12
	5. 작가이력	-----	13-15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2026년 4월 14일부터 2027년 4월 11일까지 한국 현대 조각조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조각가 류인(1956-1999)의 개인전 《이중성》을 선보인다. 약 15년이라는 짧은 활동 기간 동안 약 7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류인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자적 조형 언어를 완성했다. 이번 전시는 대표작과 함께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배치해, 류인의 예술 세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 《이중성》은 류인의 조각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함과 내면의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입방체와 변형된 신체, 손의 과장된 표현은 삶과 자유, 고통과 힘이 교차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하며, 인간과 세계, 개인과 사회가 맞닿는 지점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류인이 구축한 독자적 조형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그의 작업과 그 의미를 새롭게 마주하길 바란다.

2. 작가소개

※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 ©류인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류인 작가 프로필 이미지

©류인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조각가 류인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아버지 류경채(1920-1995)와 희곡작가였던 어머니 강성희(1921-2009)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아들이다. 그의 작품 세계는 충실한 사실적 묘사를 기반으로, 한국 추상화단의 거장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조형 감각과 희곡작가이자 교수였던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연극적 연출 감각이 결합되고, 여기에 작가 고유의 독창적 상상력이 더해지며 형성되었다. 그는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연극적 장면으로 재구성하여 조각 속에 연출하듯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독창적인 공간 해석 방식은 사실적으로 재현된 인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하고, 연극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 존재가 본능적으로 지닌 삶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에너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보다 근원적인 불안과 울분, 그리고 내면의 콤플렉스를 치열하게 환기시킨다.

류인은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였다. 그는 전통 조각의 핵심 주제인 인체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확장하며, 인간의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통과해 극복과 자유를 지향하는 내면의 힘을 시각화하였다. 비록 4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한국 조각사 안에서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평가된다. 류인은 《86 향방 초대전-류인》(윤갤러리, 서울, 한국, 1987)을 통해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제2회 개인전 《류인》(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 1991), 제3회 개인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기념 해외전》(주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1994), 제4회 개인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선정 우수창작상 수상기념전》(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1996)을 개최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하였다. 작가 사후에는 《류인-그와의 약속》(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1), 《황토현 서곡》(티아트센터 798미술특구, 베이징, 중국, 2010), 《불안 그리고 욕망》(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2015), 《경계와 사이》(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16), 《파란에서 부활로》(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2020), 《오.체.투.혼》(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한국, 2022) 등 추모전과 회고전이 이어지며 작품 세계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국립현대미술관, 1983, 1988, 1990), 목우회 공모전 특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1983-1985), 중앙미술대전 특선(호암아트홀, 1987)을 통해 조각가로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부, 1993), 한국일보 청년작가초대전 우수상(1995),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선정 우수창작상(1996)을 수상하며 동시대 한국 조각계의 주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류인의 작품은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미드나잇 미드나잇》(뮤지엄헤드, 서울, 한국, 2025), 《서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25), 《미시의 세계》(엑스포아트갤러리, 여수, 한국, 2023), 《정. 중. 동》(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2023), 《김복진과 한국 근현대 조각들》(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2022) 등 주요 기획전에서 작품이 소개되었다. 류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국공립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삼성문화재단,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 가나아트센터, 아라리오컬렉션, 모란미술관 등 주요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3. 작품 소개

이번 전시는 인간 존재의 고통과 정신적 긴장을 탐구해 온 류인의 조각 세계를 대표작들과 함께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남성의 영웅적 형상과 동시에 드러나는 불완전하고 왜곡된 신체,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형식은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이를 넘어서는 정신적 힘을 동시에 드러내는 류인 조각의 핵심적 특징이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신체 재현을 넘어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하는 조형적 사유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실적으로 구현된 신체의 왜곡과 결핍은 결함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조형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형상 속에서 영웅적이면서도 신화적인 인간상이 형성되며, 이는 인간 내면에 잠재한 강인함과 자유를 향한 의지를 드러낸다. 류인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는 드로잉과 마케트 연작은 이러한 조각들이 완성되기 이전의 사유와 실험의 과정을 보여주며, 작품이 단번에 탄생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랜 탐구와 반복적 변형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사후 캐스팅된 손은 작품 세계와 작가의 삶을 연결하는 기억의 매개로 제시된다. 손은 류인의 조각에서 감정과 의지를 전달하는 핵심적 요소이자 창작 행위 자체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그의 작업 과정과 예술적 사유의 궤적이 하나의 전시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드러난다.

몸의 발견

“나에게 흠은 곧 작업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한다.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조각에서 그 표현방식들의 긴

여행은 흠으로 시작해 다시 흠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류인-작가노트)

류인의 초기 작업에서 그는 흠으로 소조를 빚어 인간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며 존재의 균형과 신체적 조화, 근본적 생명력을 담아냈다. 흠은 그의 조각 세계의 출발점이자 근원이었으며, 작업은 곧 삶과 맞닿아 있었다. 인간 내면의 심리와 감정을 사실적 인체를 통해 섬세히 표현하고자 한 그의 진지한 태도는, 작품 전반에 흐르는 긴장과 생명력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작업은 인간의 몸을 매개로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탐색하려는 조형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류인은 전통적인 소조 방식 속에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각적 언어를 형성해 나갔으며,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과 동시대 사회 현실에 대한 감각을 함께 담아냈다. 이러한 초기 작업은 이후 전개될 조형적 실험과 표현 확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대표작으로는 <자소상>(1980), <여인 입상>(1983), <심저>(1984), 그리고 <입허>(1982, 1985) 연작이 있다.

작가의 초기 작품을 대표하는 <자소상>(1980)은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 제작된 첫 조각으로, 작가 자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자전적 작업이다. 절제된 자세로 서 있는 인물과 내면으로 침잠한 표정은 현실을 과장된 감정 없이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드러내며, 이후 작업 전반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에 대한 성찰의 출발점을 이룬다. <여인입상>(1983)은 해부학적 연구를 토대로 제작된 여성의 모습으로, 안정된 인체 비례와 구조적 균형을 통해 작가의 조형적 기초가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목우회 공모전 특선을 수상한 이 작품은 초기 인체 탐구의 성과를 집약하는 동시에, 이후 보다 강한 서사성과 긴장을 담아내기 위해 남성 신체로 관심이 이동하게 되는 전환의 계기를 시사한다. <심저>(1984)는 기둥 위에 앉은 소년상을 통해 불안과 긴장이 교차하는 내면의 상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무력하게 늘어진 신체와 대비되는 복부의 긴장은 억압된 심리와 내적 저항을 동시에 드러내며, 작가 자신의 자전적 감정이 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표출된다. <입허 II>(1985)는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선 남성 인체를 통해 존재론적 허무와 이를 넘어서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길게 강조된 신체와 공간 너머를 향해 열린 시선은 이전 작업의 내면적 성찰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조형 언어 역시 보다 역동적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시기의 작업에서는 사실적 인체 재현을 기반으로 절제된 형식성과 강한 정신성이 결합되며, 이후 등장하게 될 신체의 분절과 구조적 실험을 예고하는 조형적 단서가 나타난다. 이는 류인의 조각이 자전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인간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는 조형적 사유로 확장되어 가는 중요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육체의 해방

“조각은 인체를 표현목적이 아니라 표현수단으로 삼고 있다. 조각을 보고 있으면 자연히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느낌, 말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내 작품은 자연히 작품 내부에 갖추어진 심리적인 내면구조, 갈등, 억압된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인체를 부분적으로 압축시킨다든지, 상반신을 절단해서 생략해버린다든지 주제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든지 해서 인물을 왜곡시킨다.” (류인-작가 노트)

1980년대 후반, 추상과 설치가 중심이던 한국 미술계에서 류인은 인체를 매개로 정밀하고 힘 있는 구상조각을 선보이며 독자적 조형 세계를 확립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중앙 미술대전 특선,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작가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류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입방체 구조는 견고하고 규칙적인 형태로 사회적 질서와 제도를 상징하며, 그 안에 놓이거나 이를 밀어내는 인체는 개인의 의지와 생명력을 드러낸다. 신체의 압축, 절단, 왜곡과 손의 과장된 표현은 인간 존재의 고통과 자유, 내면의 긴장을 전달하는 핵심 요소로, 단순한 신체 묘사를 넘어 사회적 현실과 인간 내면의 긴장을 함께 담아낸다.

이 시기 류인의 조각은 인체와 구조적 형식이 결합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사각의 틀과 결합된 신체는 억압과 해방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열린 육체와 분절된 형상은 온전한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적 상태를 보여준다. 반복과 조합을 통한 조형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신체의 일부는 하나의 언어적 기호처럼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류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지각의 주>(1988), <급행열차—시대의 변>(1991), <그와의 약속>(1991)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전시되지 않았던 <이중성>(1987), <뢰성>(1988), <숨소리 II>(1989), <아들의 하늘>(1990)에서도 신체와 구조 사이의 긴장 관계를 탐구하는 조형적 실험이 확인된다. 이 작품들은 인체가 점차 분절되고 기호화되며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후 1990년대 설치적 작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의 지점을 형성한다.

류인의 인물상에서 분절된 신체와 과장된 동작은 인간 내면의 긴장과 양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 표현 방식이다. 류인의 첫 번째 개인전(1987) 이후 처음으로 전시되는 <이중성>(1987)은 얼굴을 중심으로 절단되고 변형된 신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과 긴장을 드러낸다. 좌우로 갈라진 얼굴은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상반된 감정, 이중적 갈등과 모순을 시각화한다. <뢰성>(1988)은 남성과 여성 상체를 하나로 결합해 상반된 에너지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순간을 포착하며, 왜곡된 신체로 감정을 극적으로 전달한다. <그와의 약속>(1991)은 상체만 강조되고 가슴 아래가 절단된 남성을 통해 불완전한 신체와 영웅적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길게 뻗은 팔과 절단된 몸은 억압과 지탱이 공존하는 상황을 드러내며, 극한 조건 속에서도 인간 의지가 유지되는 모습을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류인의 이 시기 주요 작업은 인체를 통해 인간 존재의 긴장과 자유, 내적 생명력을 탐구하며, 구조와 신체가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육체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낸다. 1988년 9월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수상작인 <지각의 주>(1988)는 입방체 구조와 인간 신체의 결합이 본격화된 전환점적 작품이다. 견고한 입방체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남성 형상은 억압을 넘어서는 의지와 생명력을 보여준다. 뒤로 젖혀진 몸, 크게 열린 흉부, 힘껏 내려치는 팔의 동작은 극도의 긴장과 비극적 숭고함을 동시에 환기하며, 죽음과 맞서는 인간 존재의 존엄과 한계를 표현한다. 구조적 질서와 육체적 에너지가 충돌하는 순간은, 류인의 조각이 단순한 자전적 신체 표현을 넘어 시대적 현실과 인간 조건을 탐구하는 장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류인의 <지각의 주>는 입방체와 인간 신체의 결합을 본격화하며, 억압을 넘어서는 의지와 생명력을 보여주는

전환점적 작품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실험과 신체 표현에 대한 탐구는 <아들의 하늘>(1990)과 <하나비>(1992) 연작으로도 이어진다. <아들의 하늘>에서 입방체는 둥근 알과 결합하며, 알로부터 깨어나는 생명의 근원적 본질과 연속성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신체가 온 힘을 다해 자식을 위해 알을 받쳐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비상하는 모습은 세대 계승과 인간 존재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다. 입방체와 신체, 알의 결합을 통해 류인은 구조와 생명, 힘과 탄생을 동시에 보여주며, 인간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조형적 서사로 확장한다.

류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급행열차-시대의 변>(1991)은 두 다리를 힘껏 벌리고 땅을 단단히 지탱하는 인물들이 일렬로 질주하는 군상을 보여준다. 사실적으로 표현된 근육과 긴장된 자세, 얼굴이 드러난 맨 앞 인물, 무거운 입방체를 짊어진 맨 뒤 인물, 그리고 그 사이에 겹쳐진 인물들은 개인의 분열과 중첩된 존재, 외부 압력과 사회적 부담을 상징한다. 빠르게 전진하는 인간 군상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육체와 의지를 통해 현실을 견디고 생존하려는 인간의 힘과 에너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류인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작품들은 인체의 압축, 왜곡, 구조적 결합을 통해 육체가 단순한 형태를 넘어 사회적, 심리적 긴장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매개가 됨을 보여준다. 신체는 억압과 해방 사이에서 인간 존재의 생명력과 힘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하며, 류인의 조각적 탐구가 사실적 재현에서 상징적, 구조적 실험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입증한다.

경계의 확장

"내 손을 거친 그들이 메마른 이 시대에 한 인간으로 남아주길 원했고, 함께하는 공기를 정열의 뜨거움으로 데워 그 숨소리가 소소히 가슴으로 밀려와 주실 바랐다. 그러나 그의 얼굴 뒤엔 묘한 표정의 그들이 받치고 있어 결코 순탄치 않은 숨겨진 본성이 바로 그의 정체이다. 현실을 곱게 보지 못하는 그는 어두움을 습관처럼 지니고, 불안한 이중성이 천성으로 배어나, 선악의 두 얼굴이 그의 표정일 것이다. 단 하나 희망적인 측면은 자신을 되씹어 볼 줄 아는 그는 불안한 지혜의 가능성이다. 바로 이것을 믿고 그를 녹슬게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 한편의 인간 드라마를 진행시킨다." (류인-작가 노트)

1990년대에 접어들며 그의 작업은 보다 실험적이고 설치적 성격으로 확장된다. 인체는 부분적으로 기호화되어 구조적 요소와 결합하며, 시대 속 고뇌하는 인간 군상을 드러낸다. 입방체는 단순한 틀을 넘어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적 장으로 변모하고, 흙을 기반으로 철근, 돌, 시멘트 등 다양한 물질이 결합된 조각은 설치적 상황으로 확장된다. 이 시기의 류인은 작업은 반복적 구조와 설치적 확장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불안과 좌절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이 시기에 제작된 <황색음-물헛던 숲>(1994)과 <황색해류 II>(1995)는 이러한 조형적 탐구가 집약된 작품으로, 신체와 구조, 물질과 공간이 하나의 긴장된 장을 이루며 인간과 세계의 충돌과 내면의 흔적을 강하게 환기한다. 두 작품은 작가의 조각 세계가 설치적 확장과 존재론적 사유로 나아간 마지막 단계이자, 그의 예술적 탐구가 도달한 심화된 지점을 보여준다. <황색음-물헛던 숲>(1994)은 인체 조각과 설치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으로, 개인적 신체 표현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몸과 시대적 목소리를 형상화하는 전환점이 된다. 숨겨졌거나 억압된 내면과 역사적 기억, 개인적 경험이 드러나는 공간을 설치 조각으로 구성함으로써, 류인은 단순한 인체 묘사에서 벗어나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존재 전체를 조형적으로 탐색한다. <황색해류 II>(1995)는 거대한 원형 방패에 가려진 상체와 대비되게 곧게 뻗은 두 다리를 강조하며, 인간 존재를 지탱하는 힘과 의지를 조형적으로 부각시킨다. 작가 작업에서 반복되는 견고한 하체 구조는 버티고 서는 인간의 근원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팔은 실제 인체 대신 앙상한 나뭇가지의 형태로 표현되어 신체의 취약성과 내적 불안을 드러내며, 강인함과 연약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간 조건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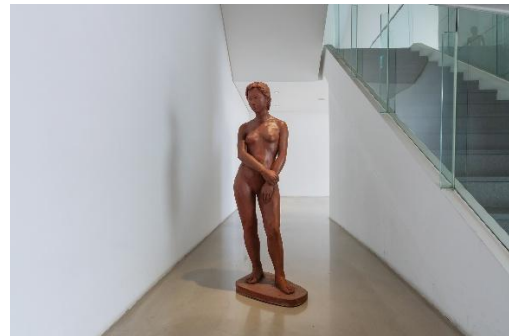
작품 이미지

※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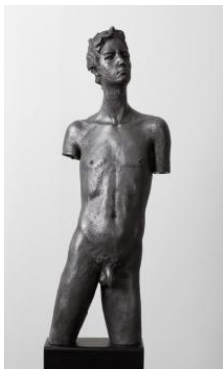
※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 ©류인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류인 <자소상>(1980)
청동, 43 x 43 x 143(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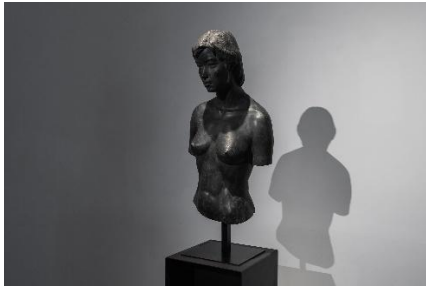
류인 <여인 입상>(1983)
합성수지, 30 x 25 x 75(h) cm



류인 <입허 I>(1982)
합성수지, 30 x 25 x 75(h) cm



류인 <입허 II>(1985)
합성수지, 111 x 39 x 193(h) cm



류인 <심저 II>(1984)
합성수지, 44 x 24 x 93(h) cm



류인 <이중성>(1987)
합성수지 110 x 50 x 98(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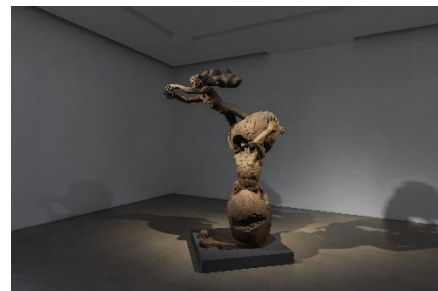
류인 <심저>(1984)
청동, 54 x 55 x 200(h) cm



류인 <지각의 주>(1988)
청동, 140 x 82 x 244(h) cm, 33 x 32 x 140(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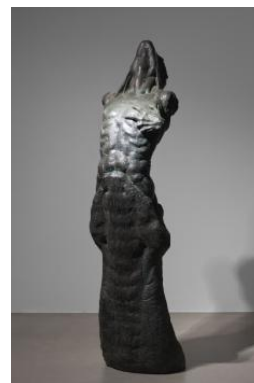
류인 <뢰성>(1988)
합성수지, 127 x 72 x 45 cm



류인 <아들의 하늘>(1990)
합성수지, 180 x 115 x 250(h) cm



류인 <숨소리 I>(1989)
합성수지, 철, 가시나무, 흙, 70 x 70 x 180(h) cm



류인 <숨소리 II>(1989)
합성수지, 59 x 60 x 195(h) cm



류인 <푸짐한 식사>(1990)
합성수지, 철판, 가슴기, 92 x 92 x 60(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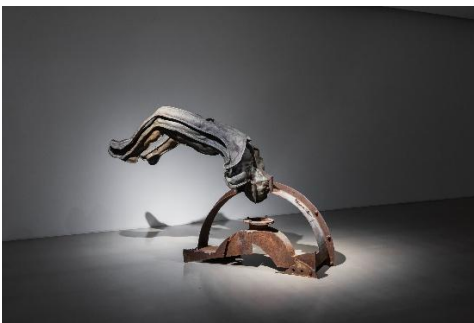
류인 <황색음-문혔던 숲>(1994)
청동, 철, 흙, 610 x 480 x 375(h) cm



류인 <급행열차-시대의 변>(1991)
합성수지, 120 x 1100 x 270(h) cm (가변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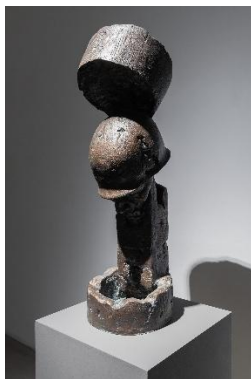
류인 <그와의 약속>(1991)
합성수지, 114 x 28 x 97(h) cm



류인 <황토현서곡-부활>(1995)
청동, 철, 75 x 110 x 125(h) cm



류인 <하나비 II>(1992)
합성수지, 100 x 100 x 220(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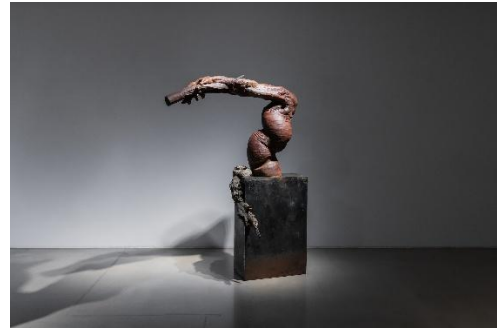
류인 <부서진 세월>(1993)
합성수지, 25 x 25 x 78(h) cm



류인 <씩트는 달-황토현서곡>(1994)
청동, 110 x 145 x 220(h) cm



류인 <황색해류 II>(1995)
청동, 철, 나무, 120 x 55 x 205(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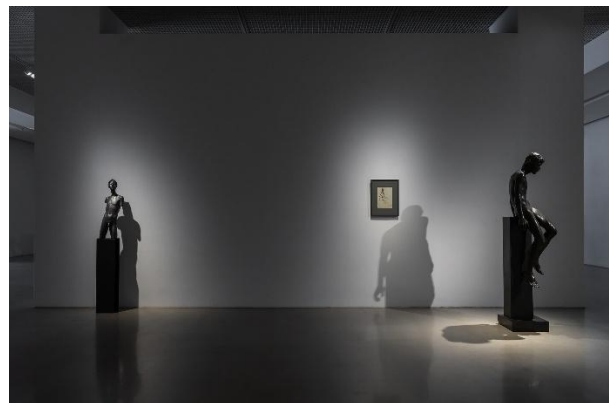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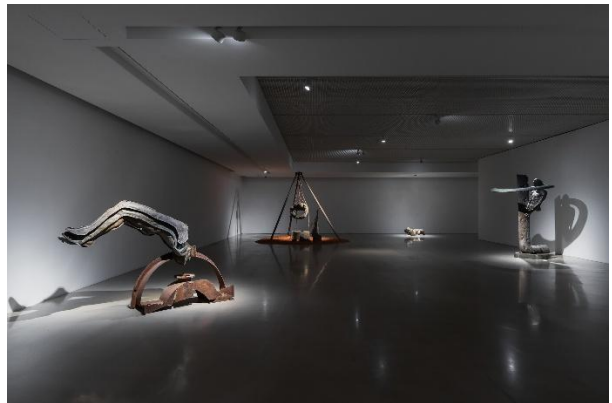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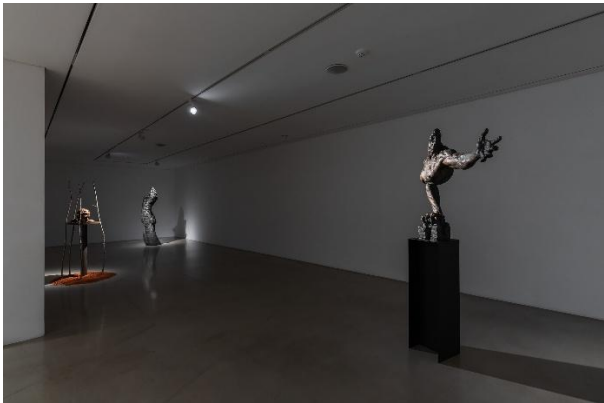
류인, <황색 폭풍>(1995)
합성수지, 철, 나무, 125 x 52 x 188(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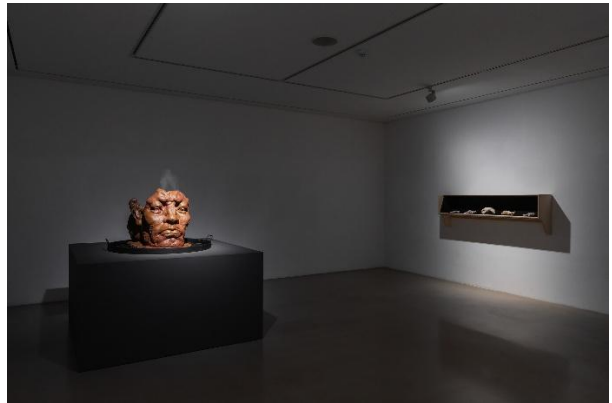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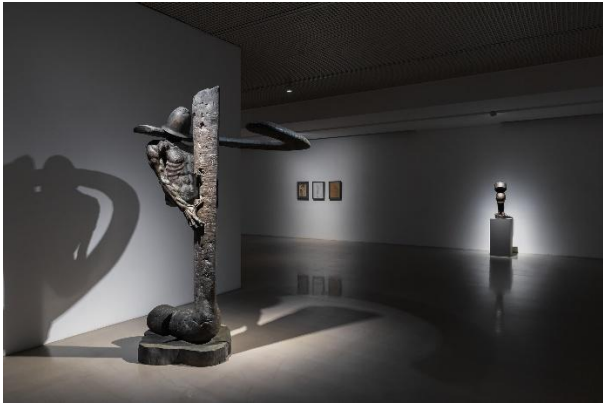
4. 전시전경

※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 ©류인 에스테이트. [유족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류인 개인전 《이중성》(아라리오갤러리 천안, 2026) 전시전경.

5. 작가이력

류인

1956-1999, 한국 출생

학력

- 1987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 198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6 류인-이중성,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22 류인-오.체.투.혼,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한국
- 2020 류인-파란에서 부활로,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 2016 류인-경계와 사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15 존재의 연소,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제주, 한국
 목음,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II, 제주, 한국
 15주기 추모전: 불안 그리고 욕망,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한국
- 2010 11주기 추모전: 황토현 서곡, 티아트센터, 798미술특구, 베이징, 중국
- 2004 5주기 추모전: 류인, 모란갤러리, 남양주, 한국
- 2001 2주기 류인 추모전: 류인-그와의 약속,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 1996 제4회 개인전. 제1회 한국미술평론가 협회선정 우수 창작상 수상기념 개인전, 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1994 제3회 개인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해외전, 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 1991 제2회 개인전. 류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
- 1987 제1회 개인전. 86 향방 초대전-류인, 윤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 2026 2026 소장품전: POMA Collection: Steel Sculpture,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 2025 미드나잇 미드나잇, 뮤지엄헤드, 서울, 한국
 서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23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연계 소장품전: 미시의 세계, 엑스포아트갤러리, 여수, 한국
 정. 중. 동,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조각적 태도, POMA 찾아가는 미술관, 포스코갤러리, 포항, 한국
 12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3, 코엑스, 서울, 한국
- 2022 국립현대미술관-청주시립미술관 협력기획전: 김복진과 한국 근현대 조각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 2022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미술의 공진화, 강정보 디아크 광장, 대구, 한국
 재현과 재연, 롯데갤러리,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천, 한국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연계 전시: 시대의 기록자 손상기 & 류인, 엑스포아트갤러리, 여수, 한국
- 2021 POMA 신소장품전 2019-2020 - 20이일: 과거와 미래 사이,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인간, 일곱 개의 질문, 리움미술관, 서울, 한국
- 2019 2019 소장품전, 초현 장구건관,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 2001 요절과 숙명의 작가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 1997 97 한국현대미술: 사람, 동물, 그리고 기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과천, 한국
 우리시대의 자화상-아버지,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 1995 독립 50주년: 통합의 꿈,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 1993 Front DMZ-Wing 284x4,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1992 오늘의 구상미술: 꿈과 현실의 괴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1991 한국의 구상조각: 현재와 미래, 모란미술관, 남양주, 한국
 전환의 시대의 미술의 지평,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 1990 예상 밖의 전시, 토탈갤러리, 서울, 한국
 젊은 시각-내일을 위한 제안,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 1989 80년대 구상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 1988 현재_이미지,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오늘날 25인의 구상조각가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과천, 한국
- 1987 조각의 방법, 중앙갤러리, 대전, 한국
 외 다수 (총 70회 이상)

수상

- 1996 제1회 한국 미술평론가협회선정 우수창작상, 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1995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초대전 우수상, 백상기념관, 한국
- 1993 제1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화체육부, 한국
- 1990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1988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1987 중앙미술대전 특선, 호암아트홀, 한국
- 1983-85 목우회 공모전 특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1983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주요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대구미술관, 한국
대전시립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포항시립미술관, 한국
청주시립미술관, 한국
삼성문화재단, 한국
국립극장, 한국
서울 예술의전당, 한국
가나아트센터, 한국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모란미술관, 한국
충무상공회의소, 한국
동아갤러리, 한국
제주조각공원, 한국

ARARIO GALLERY CHEONAN

RYU In
Duality



Installation view of *RYU In: Duality* at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26.

Artist	: RYU In (1956–1999, Korea)
Title	: <i>Duality</i>
Dates	: 14 Apr 2026 – 11 Apr 2027
Venue	: ARARIO GALLERY CHEONAN (43 Mannam-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Artworks	: 50 Artworks in total (23 Sculptures and installation, accompanied by 27 Drawings and Maquettes)

[Images]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Estate of RYU In.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5dEtXpk9gkAXfPYInGMzuq_kFwiuC4j-

[Inquiry]
ARARIO GALLERY CHEONAN | E. info@arariogallery.com
Sangmi RHEE, Deputy Director | E. sangmi.rhee@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s	1. Exhibition Overview	-----	2
	2. Artist Introduction	-----	2-3
	3. Artworks	-----	3-10
	4. Installation view	-----	10-12
	5. Artist CV	-----	13-15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CHEONAN presents *Duality*, a solo exhibition of sculptor **RYU In** (1956–1999), who established a distinctive position in contemporary Korean figurative sculpture. The exhibition will be on view from April 14, 2026, to April 11, 2027. RYU In, during his relatively short career of about 15 years, he produced approximately 70 works, continuously explor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 existence and developing his own unique sculptural language. This exhibition is composed to offer a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experience of his artistic world by presenting both his representative works and pieces that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troduced until now.

Duality vividly reveals the complexity of human existence and inner tension through RYU In's sculptures. Cubic forms, distorted bodies, and exaggerated hands, allow viewers to viscerally experience moments where life and freedom, pain and strength intersect, while sharply illuminating the points at which the individual meets society, and humanity encounters the world. Through this exhibition, audiences are invite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RYU In's distinctive artistic universe and to reconsider the significance of his work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2. Artist Introduction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Estate of RYU In.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RYU In, Artist Portrait

©Estate of RYU In.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Sculptor RYU In was the youngest son born to his father, RYU Kyung-chaе (1920–1995), a pioneer of Korean abstract art, and his mother, KANG Sung-hee (1921–2009), a playwright. RYU In's artistic world was grounded in faithful realism, combined with a refined sense of form inherited from his father—an influential figure in Korean abstraction—and a theatrical sensibility derived from his mother, who was both a playwright and professor. This foundation was further shaped by the artist's own distinctive imagination.

RYU In reconstructed the most dramatic moments into theatrical scenes, staging them within his sculptures as if directing a performance. This unique approach to spatial interpret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deliberate distortion and transformation of realistically rendered human bodies, along with the active use of theatrical devices. Through this, he reveals the intense instinctual attachment to life and energy inherent in human existence, while powerfully evoking deeper anxiety, resentment, and inner complexes.

RYU In studied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Expanding the human figure—one of the central subjects of traditional sculpture—through a contemporary lens, he visualized an inner force that aspires toward overcoming and freedom, passing through human suffering and psychological anguish. Although he passed away at the young age of 43, he is regarded as an artist who established a distinctive sculptural language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sculpture. RYU In began his full-fledged artistic career with his first solo exhibition *86 Hyangbang Invitational Exhibiton* (Yoon Gallery, Seoul, Korea, 1987). He went on to solidify his position as an artist through subsequent solo exhibitions, including his second solo exhibition *RYU In* (Art Hall,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Seoul, Korea, 1991); his third solo exhibition *Overseas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Today's Young Artist Award*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USA, 1994); and his fourth solo exhibition *RYU In*, commemorating the Outstanding Creative Work Award Selected by the Korea Art Critics Association (Art Space, Seoul, Korea, 1996). Following his passing, a series of memorial and retrospective exhibitions—such as *RYU In – A Promise with Him*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01); *Hwangtohyun Seogok* (T-Art Center 798 Art District, Beijing, China, 2010); *Anxiety and Desire*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15); *The Boundary and the Between*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6); *Awakening*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0); and *RYU In* (GS Caltex Yeulmaru, Yeosu, Korea, 2022)—have continued to reassess and shed new light on his work. RYU In gained recognition early on through major

awards, including Special Selection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983, 1988, 1990); Special Selection at the Mokwoohoe Exhibition, an Awar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983–1985); and a Special Selection at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Hoam Art Hall, Korea, 1987). He further established himself as a leading figure in contemporary Korean sculpture with achievements such as the Today's Young Artist Awar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1993), the Outstanding Award at the Hankook Ilbo Young Artists Invitational Exhibition (1995), and the Outstanding Creative Work Award selected by the Korea Art Critics Association (1996).

RYU In's works have been consistently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at major institutions in Korea. These include *Midnight* (Museumhead, Seoul, Korea, 2025); *Prelude: With a Heart Singing Star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5); *Microscopic World* (Expo Art Gallery, Yeosu, Korea, 2023); *Moving in Stillness*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3); and *Kim Bokjin and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Sculptors*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2022). RYU In's works are held in the collections of major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Seoul Museum of Art, Daegu Art Museum, Daejeon Museum of Art, Pohang Museum of Steel Art, and Cheongju Museum of Art. They are also part of prominent institutional collections such as the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Seoul Arts Center, Gana Art Center, Arario Collection, and Moran Museum of Art.

3. Artworks

This exhibition *Duality* offers a multidimensional exploration of RYU In's sculptural world, which has consistently examined human suffering and psychological tension, through a selection of his major works. The juxtaposition of heroic male figures with incomplete and distorted bodies, along with the recurring structural forms, constitute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his sculpture—simultaneously revealing the vulnerability of human existence and the inner strength that strives to transcend it. His work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sculptural inquiry that goes beyond mere bodily representation to probe the depths of the human psyche. The distortions and absences in his realistically rendered bodies do not signify flaws, but rather function as formative devices that generate new meaning. Within these forms, a heroic yet mythological image of humanity emerges, expressing the latent resilience within and the will toward freedom. The drawings and maquettes presented alongside his sculptures illuminate the processes of thought and experimentation that precede their completion, offering key insight into how these works were not created instantaneously but developed through prolonged inquiry and iterative transformation. Additionally, the posthumously cast hands are presented as mediators of memory that connect the artist's life with his body of work. The hand, a central element in RYU In's sculpture, conveys emotion and will while symbolizing the act of creation itself. Through this, the trajectory of his working process and artistic thinking is cohesively integra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exhibition.

The Discovery of the Body

Clay, for me, signifies both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my work. Much like human affairs, the long journey of sculptural expression begins with clay and ultimately returns to it.

– RYU In

In his early works, RYU In shaped clay into modeled sculptures, realistically rendering the human figure while embodying the balance of existence, physical harmony, and a fundamental vitality. Clay was both the point of departure and the origin of his sculptural world, and his practice was inseparable from life itself. His earnest pursuit of expressing inner psychology and emotion through the realistic human body gave rise to the tension and vitality that permeate his work. This period can be understood as a formative sculptural exploration in which the human body served as a medium for investigating both the self and the world.

Within the traditional modeling method, RYU In developed his sculptural language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anatomical structure. Through works with strong autobiographical elements, he conveyed both a yearning for new worlds and a sensitivity to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society. These early works became a crucial foundation for the formal experimentation and expansion of expression that would follow. Representative works from this period include *Self-Portrait*

(1980), *Standing Woman* (1983), *Deep Down from Bottom* (1984), and the *Entering Emptiness* series (1982, 1985).

A key early work, *Self-Portrait* (1980), was created during his time at Hongik University and marks his first sculpture. This autobiographical piece presents a realistic depiction of the artist himself. The restrained posture of the standing figure and the introspective expression reveal an attitude of confronting reality without exaggerated emotion, establishing a point of departure for the ongoing reflection on existence that permeates his later work. *Standing Woman* (1983), based on anatomical study, depicts the female body and demonstr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st's formal foundation through stable proportions and structural balance. This work, which received a Special Selection Prize at the Mokwoo Art Association Competition, encapsulates the achievements of his early exploration of the human figure while also suggesting a turning point—his subsequent shift toward the male body in pursuit of stronger narrative and tension. *Deep Down from Bottom* (1984) portrays a seated boy atop a column, embodying an inner state where anxiety and tension intersect. The contrast between the limp, powerless body and the tension concentrated in the abdomen reveals both suppressed psychology and internal resistance, expressing the artist's autobiographical emotions in a more intensified manner. *Entering Emptiness II* (1985) symbolically presents existential emptiness and the will to overcome it through a male figure standing with legs widely apart. The elongated body and the gaze directed beyond space indicate that the introspective inquiry of earlier works is expanding into a relationship with the external world, while his sculptural language evolves in a more dynamic direction. In this period, a restrained formal clarity rooted in realistic representation of the human body is combined with a strong sense of spirituality. At the same time, early signs of bodily fragmentation and structural experimentation—elements that would later become central—begin to emerge. This stage marks a significant early phase in which RYU In's sculpture evolves from autobiographical experience into a broader sculptural inquiry into human existenc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orld.

The Liberation of the Body

Sculpture does not treat the human body as its subject, but as a means of expression. When one looks at sculpture, I believe there should naturally be a feeling, a voice that bursts forth from within. For this reason, my work tends to reveal the psychological inner structure—conflict, tension, and states of repression—that reside within it. To achieve this, I distort the human figure by partially compressing the body, cutting off and omitting the upper half, or intensifying only those parts that most strongly convey the theme. (RYU In)

In the late 1980s, when abstraction and installation dominated the Korean art scene, RYU In established a distinctive sculptural language by presenting precise and powerful figurative sculpture centered on the human body. He gained recognition through major awards, including Special Prize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and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as well as the Today's Young Artist Award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curring cubic structures in his work symbolize social order and institutional systems through their solid and regulated forms, while the human body placed within or pushing against them expresses individual will and vital force. The compression, severance, and distortion of the body, along with the exaggerated depiction of hands, serve as key elements that convey human suffering, freedom, and inner tension. Moving beyond mere physical representation, his work encapsulates both the realities of society and the psychological tensions within the human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RYU In's sculpture reache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human body with structural forms. Bodies combined with square frameworks reveal the tension between oppression and liberation, while open corporeality and fragmented figures suggest a transitional state moving toward a complete being. Formal experimentation through repetition and combination begins in earnest, and parts of the body start to function as a kind of visual language or symbolic sign. In this exhibition,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closely examined through RYU In's major works, including *Pillar of Perception* (1988), *Express Train-A Rationale for the Age* (1991), and *Promise with Him* (1991). Additionally, works that have rarely been exhibited for a long time—such as *Duality* (1987), *Thunder* (1988), *The Sound of Breath II* (1989), and *Heaven of Son* (1990)—demonstrate his sculptural experiments exploring the tension between body and structure. These works reveal the process by which the human figure becomes increasingly fragmented and symbolized, expanding in relation to space, and mark a crucial transitional moment leading toward his installation-based works of the 1990s.

In RYU In's figural sculptures, fragmented bodies and exaggerated gestures serve as key expressive strategies that reveal inner tension and duality within the human condition. *Duality* (1987), exhibited for the first time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87, presents a body that is cut and transformed around the face, exposing the instability and tension inherent in human existence. The face, split into left and right halves, visualizes the coexistence of opposing emotions—inner conflict and contradiction. *Thunder* (1988) captures the moment when opposing energies collide and merge by combining male and female upper bodies into a single form, conveying emotion with dramatic intensity through a distorted figure. *Promise with Him* (1991) emphasizes only the upper body of a male figure, with the lower half severed, simultaneously presenting an incomplete body and a heroic image. The elongated arms and truncated torso reveal a condition in which oppression and endurance coexist, expressing—through sculptural form—the persistence of human will even under extreme conditions.

In this period, RYU In's major works explore the tension, freedom, and inner vitality of human existence through the body, while powerfully articulating the theme of the liberation of the body through the integration of structure and corporeality. *Pillar of Perception* (1988), which received Special Selection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n September 1988, marks a pivotal turning point where the combination of cubic structures and the human body becomes fully realized. The male figure rising between solid cubes embodies the will and vitality that transcend oppression. The backward-leaning posture, widely opened chest, and forceful downward motion of the arms evoke both extreme tension and a sense of tragic sublimity, expressing the dignity and limits of human existence in confrontation with death. The moment where structural order and bodily energy collide demonstrates how RYU In's sculpture expands beyond autobiographical bodily expression into an exploration of historical reality and the human condition. *Pillar of Perception* thus represents a key transitional work in which the integration of cubic forms and the human body is fully developed, conveying the will and vitality that overcome constraint. This exploration of structural experimentation and corporeal expression continues in works such as *Heaven of Son* (1990) and the *Hana Monument* series (1992). In *Heaven of Son*, the cube is reinterpreted with a rounded egg form, revealing the fundamental essence and continuity of life emerging from within. The image of a father's body supporting the egg with all its strength, while new life rises from it, symbolically embodies generational succession and the persistence of human existence. Through the integration of cube, body, and egg, RYU In simultaneously presents structure and life, force and birth, exp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existence and the world into a sculptural narrative.

One of RYU In's most well-known works, *Express Train-A Rationale for the Age* (1991), presents a group of figures running in a single line, their legs spread wide and firmly grounded as they surge forward. The realistically rendered muscles, tense postures, the foremost figure with a visible face, the last figure bearing a heavy cubic form, and the overlapping bodies in between together symbolize individual fragmentation, layered existence, and the pressures and burdens imposed by society. This rapidly advancing procession of human figures dramatically conveys the strength and energy of individuals striving to endure and survive through their bodies and will amid a rapidly changing society. In this way, RYU In's works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demonstrate how the body—through compression, distortion, and structural integration—transcends mere physical form to become a medium that simultaneously expresses social and psychological tension, as well as the will for freedom. The body emerges as a central element that visually communicates the vitality and force of human existence between oppression and liberation, marking a crucial phase in which his sculptural inquiry expands from realistic representation to symbolic and structural experimentation.

The Expansion of Boundaries

I hoped that those who passed through my hands would remain as human beings in this barren age, and that the air we share would be warmed with the heat of passion, so that their breath might gently flow into our hearts. Yet behind their faces lies a shadow of strange expression—this hidden nature, never simple or smooth, is their true identity. Unable to see reality in a gentle light, they carry darkness as a habit, and an uneasy duality emerges as their nature; the two faces of good and evil become their expression. The one hopeful aspect is that they are capable of reflecting upon themselves—this is the possibility of an anxious wisdom. Holding onto this, I stage a human drama before the absurd reality that corrodes them. (RYU In)

Entering the 1990s, RYU In's work expands into a more experimental and installation-based practice. The human body becomes partially signified and combined with structural elements, revealing figures that embody the anguish of individuals within their times. The cube evolves beyond a simple framework into a spatial field that interacts dynamically with the body, while sculptures incorporating materials such as steel, stone, cement, and soil, extend into powerful, installation-like settings. Through repetitive structures and spatial expansion, his work in this period more directly exposes the anxiety and frustration inherent in human 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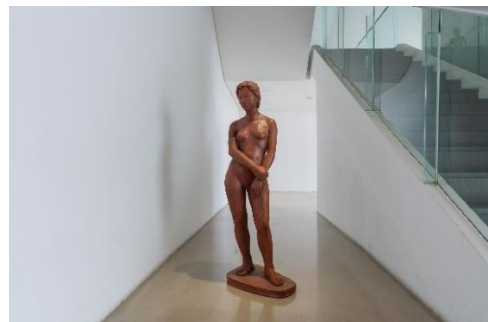
In particular, *Yellow Sound-Buried Forest* (1994) and *Yellow Ocean Current II* (1995) exemplify this intensified sculptural exploration. In these works, body, structure, material, and space form a single field of tension, powerfully evoking the collis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world, as well as traces of inner experience. They represent the final phase in which RYU In's sculptural language expands into installation and deepens into ontological reflection. *Yellow Sound-Buried Forest* (1994), which combines figural sculpture with installation elements, marks a turning point from personal bodily expression to the embodiment of the social body and the voice of the times. By constructing an installation that reveals suppressed inner states, historical memory, and personal experience, RYU In moves beyond mere depiction of the human figure to explore the environment surrounding human existence as a whole. *Yellow Ocean Current II* (1995) emphasizes two firmly extended legs in contrast to an upper body obscured by a large circular shield, highlighting the force and will that sustain human existence. The solid lower-body structures that recur throughout his work function as symbols of the fundamental vitality that enables humans to endure. In contrast, the arms are rendered not as human limbs but as withered branches, exposing bodily fragility and inner anxiety, and suggesting a human condition in which strength and vulnerability coexist.

Artwork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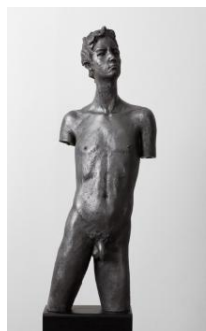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Estate of RYU In.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RYU In, *Self-Portrait*, 1980,
Bronze, 43 x 43 x 143(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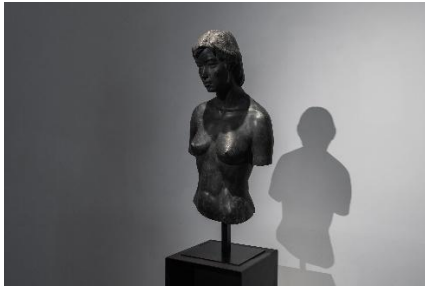
RYU In, *Standing Woman*, 1983,
FRP, 53 x 33 x 130(h) cm



RYU In, *Entering Emptiness I*, 1982,
FRP, 30 x 25 x 75(h) cm



RYU In, *Entering Emptiness II*, 1985,
FRP, 111 x 39 x 193(h) cm



RYU In, *Deep Down from Bottom II*, 1984,
FRP, 44 x 24 x 78(h)cm



RYU In, *Duality*, 1987, FRP, 110 x 50 x 98(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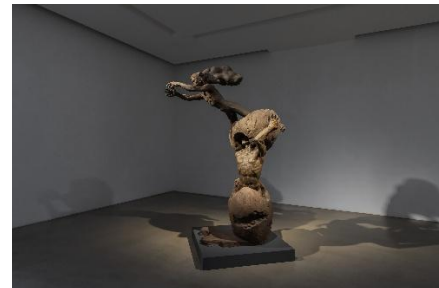
RYU In, *Deep Down from Bottom*, 1984,
Bronze, 54 x 55 x 200(h) cm



RYU In, *Pillar of Perception*, 1988, Bronze,
140 x 82 x 244(h) cm, 33 x 32 x 140(h) cm (2 pcs)



RYU In, *Thunder*, 1988, FRP, 127 x 72 x 45 cm



RYU In, *Heaven of Son*, 1990,
FRP, 180 x 115 x 250(h) cm



RYU In, *The Sound of Breath I*, 1989, FRP, iron, thorn tree, soil,
100 x 100 x 180 cm (Dimensions variable)



RYU In, *The Sound of Breath II*, 1989,
FRP, 59 x 60 x 195(h) cm



RYU In, *Abundant Meal*, 1990,
FRP, iron plate, humidifier, 92 x 92 x 60(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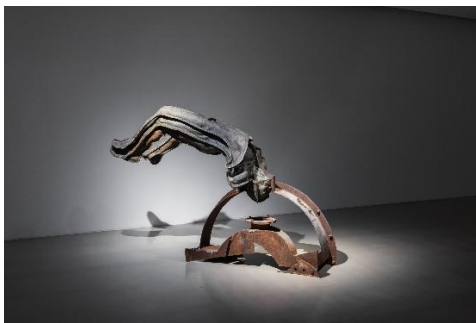
RYU In, *Yellow Sound-Buried Forest*, 1994,
Bronze, iron, soil, 610 x 480 x 375(h) cm (Dimensions variable)



RYU In, *Express Train-A Rationale for the Age*, 1991,
FRP, 120 x 1100 x 270(h) cm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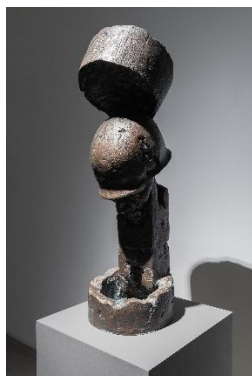
RYU In, *Promise with Him*, 1991,
FRP, 114 x 28 x 97(h) cm



RYU In, *Hwangtohyun Overture II-Resurrection*, 1995,
Bronze, cast iron, 75 x 110 x 125(h) cm



RYU In, *Hana Monument II*, 1992,
FRP, 100 x 100 x 220(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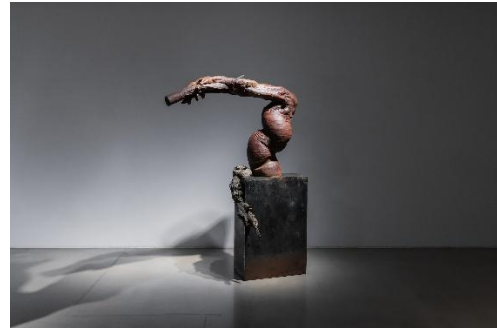
RYU In, *Broken Times*, 1993,
FRP, 25 x 25 x 78(h)cm



RYU In, *Increasing Moon-Hwangtohyun Overture*,
1994, Bronze, 110 x 145 x 220(h) cm



RYU In, *Yellow Ocean Current II*, 1995,
FRP, iron, wood, 120 x 55 x 205(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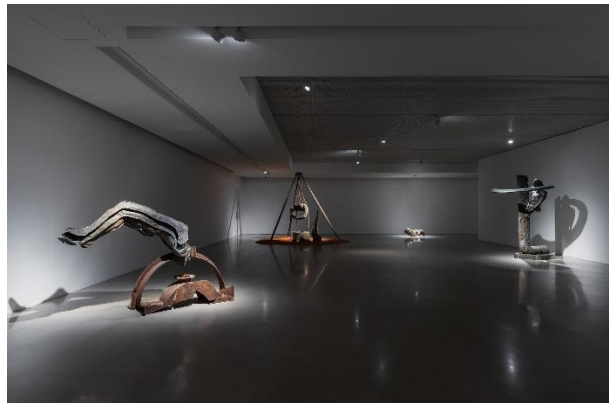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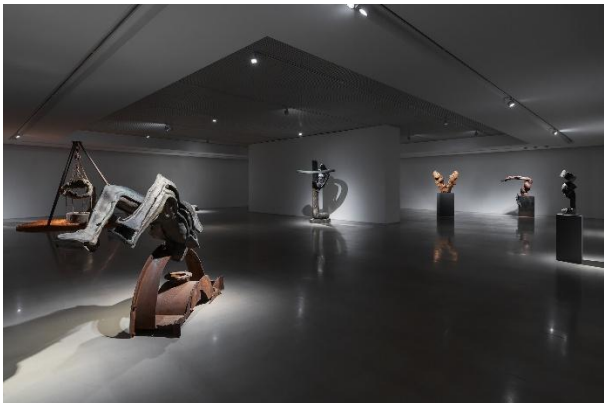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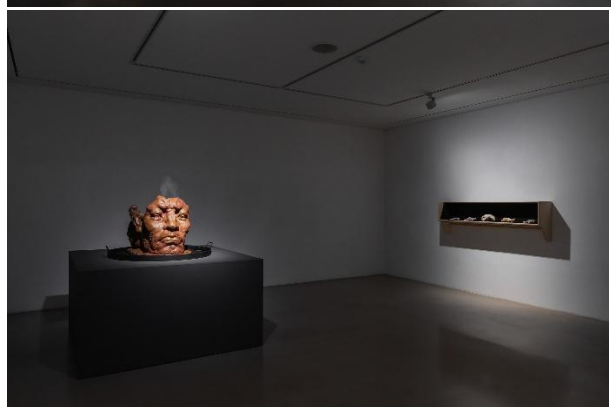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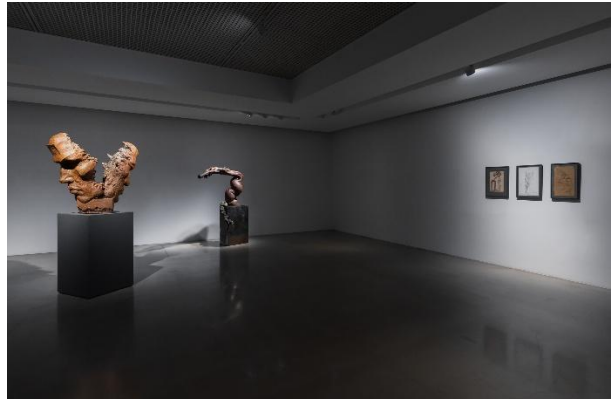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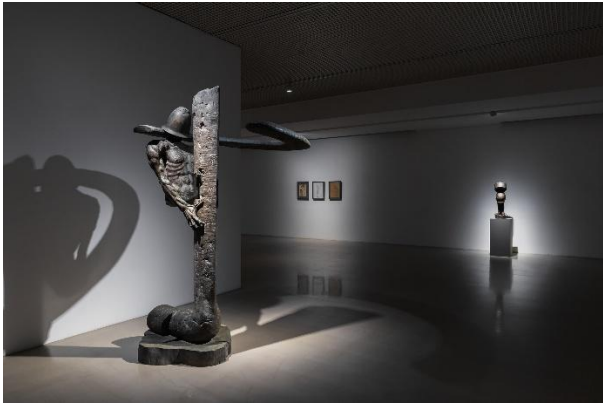
RYU In, *Yellow Storm*, 1995
FRP, iron, wood, 125 x 52 x 188(h) cm

4. Installation view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Estate of RYU In.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Installation view of *RYU In: Duality* at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26.

5. Artist CV

RYU In

1956-1999, born in Korea

EDUCATION

- 1987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81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6 *Ryu In: Duality*,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expected)
 2022 *Ryu In*, GS Caltex Yeulmaru, Yeosu, Korea
 2020 *Ryu In-Awakening*,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Seoul, Korea
 2016 *Ryu In-The Boundary and the Between*,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5 *Combustion of the Existence*,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Jeju, Korea
The 15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Anxiety and Desire,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10 *The 11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Hwangtohyun Seogok*, T Art Center, Beijing, China
 2004 *The 5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Ryu In*, Moran Gallery, Namyangjoo, Korea
 2001 *The 2nd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Promise with Him – Exhibition in Memory of Ryu In*, Insa Art Center, Seoul, Korea
 1996 *Ryu In, The 4th Solo Exhibition, Personal Exhibition in Celebration of Outstanding Creative Work Award at the First Korea Art Critique Association*, Art Space Seoul, Korea
 1994 *The 3rd Solo Exhibition, Overseas Exhibition for Award of the First Young Artist of Today*, Korea Cultural Center, New York, USA
 1991 *The 2nd Solo Exhibition*, Art Hall of Korea Arts and Culture Service Center, Seoul, Korea
 1987 *1st 86 Hyangbang Invitational Exhibition*, Yoon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6 *POMA Collection: Steel Sculpture*,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2025 *Midnight Midnight*, Museumhead, Seoul, Korea
Prelude: With a Heart Singing Star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3 *Microscopic World*, Expo Art Gallery, Yeosu, Korea
Moving in Stillness,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Seoul, Korea
Sculptural Attitude, Pohang Steel Art Museum Collection, POSCO Gallery, Pohang, Korea
12th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2023 in Seoul, COEX, Seoul, Korea
 2022 *Kim Bokjin and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Sculptors*,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2022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Art, Co...evolution*, Daegu, Korea
Representation and Recurrence: A Rebirth of Korean Figurative Art, Lotte Gallery, Incheon, Korea
 Exhibition for Establishing the Yeosu City Museum of Art, *The Witness of Times, Son Sangki & Ryu In*, Expo Art Gallery, Yeosu, Korea
 2021 *New Acquisitions 2019-2020 Between Past and Future*, Pohang Museum of Art, Pohang, Korea
Human, Seven Questions, Leeum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9 *POMA Collection*, Pohang Museum of Art, Pohang, Korea
 2001 *The Artists of Premature Death and Fate*, Gana Art Center, Seoul, Korea
 1997 *Contemporary Art of Korea 97: Human, Animal and Machin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 Korea
Portrait of Our Times – Father,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1995 *Year of the Arts -The 5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Hopes of Unification*,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1993 *Front DMZ-Wing 248x4*,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1992 *Today of Figurative Art: Armageddon of Dream and Realit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1991 *The Figurative Sculpture of Korea: Its Present and Future*, Moran Museum of Art, Namyangjoo, Korea
The Horizon of Art in the Age of Conversion,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 1990 *The Unexpected Exhibition*, Total Gallery, Seoul, Korea
Young Vision – Proposals for Tomorrow,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 1989 *The Figurative Arts of the 80s*,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 1988 *Present_image*, Gallery Hyundai, Seoul, Korea
The Invitational Exhibition of 25 Figurative Sculptors of Toda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 Korea
- 1987 *The Method of Sculpture*, Joong-Ang Gallery, Daejeon, Korea
 And others (over 70 exhibitions)

AWARDS

- 1996 Outstanding Creative Work Award at the First Korea Art Critique Association, Art, Korea
- 1995 Outstanding Award at the First Young Artist Invitational by Hankook Ilbo, Baeksang Memorial Center, Korea
- 1993 Today's Young Artist Award,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and Tourism, Korea
- 1990 Special Selection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1988 Special Selection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1987 Special Selection at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Hoam Art Hall, Korea
- 1983-85 Special Selection at the Mokwoohoe Open Exhibition and Award of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1983 Special Selection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LECTED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Korea
 Daegu Art Museum, Korea
 Daejeon Museum of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Pohang Museum of Steel Art, Korea
 Cheongju Museum of Art, Korea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Korea
 National Theater of Korea, Korea
 Seoul Arts Center, Korea
 Gana Art Center, Korea
 ARARIO Collection, Korea
 Moran Museum of Art, Korea
 Chungmu Chamber of Commerce, Korea
 Donga Gallery, Seoul, Korea
 Jeju Sculpture Park, Jeju, Korea